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0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간이 흘러,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새 왕이 되었어요.

아닥사스다는 아버지인 아하수어로
왕과 에스더 왕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그때 '에스라'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는 '율법 학자'였어요.

하루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명령하노니 내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누구든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에스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거라.”**

그러면서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은과 금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아직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에스라는 감격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군요.
참으로 은혜 넘치는 일입니다.”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 있었어요.
포로생활을 마치고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완공한 성전이었죠.

하지만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남유다의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고
도시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자기의 옷과 머리카락, 수염을 쥐어뜯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죠.

에스라의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편,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시중드는 관리 중에,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왕의 곁에서, 왕이 먹고 마실 음식과 술을 확인하는 게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평소와 달리 느헤미야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찌하여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어디 아픈 건 아닌 듯 한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겐가?”**

**“아, 왕이시여... 송구합니다.
실은... 남유다에 다녀온 제 형제에게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예루살렘 성이 성벽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그만....”**

**“어허. 안 됐구만.
그럼 내가 자네에게 어찌 해 주면 좋겠는가?”**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
왕에게 대답했어요.**

**“왕께서 관찮으시다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성벽에 필요한 나무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뭔가? 보아하니 예루살렘 녀석 같은데
우리 지역에선 왜 알짱알짱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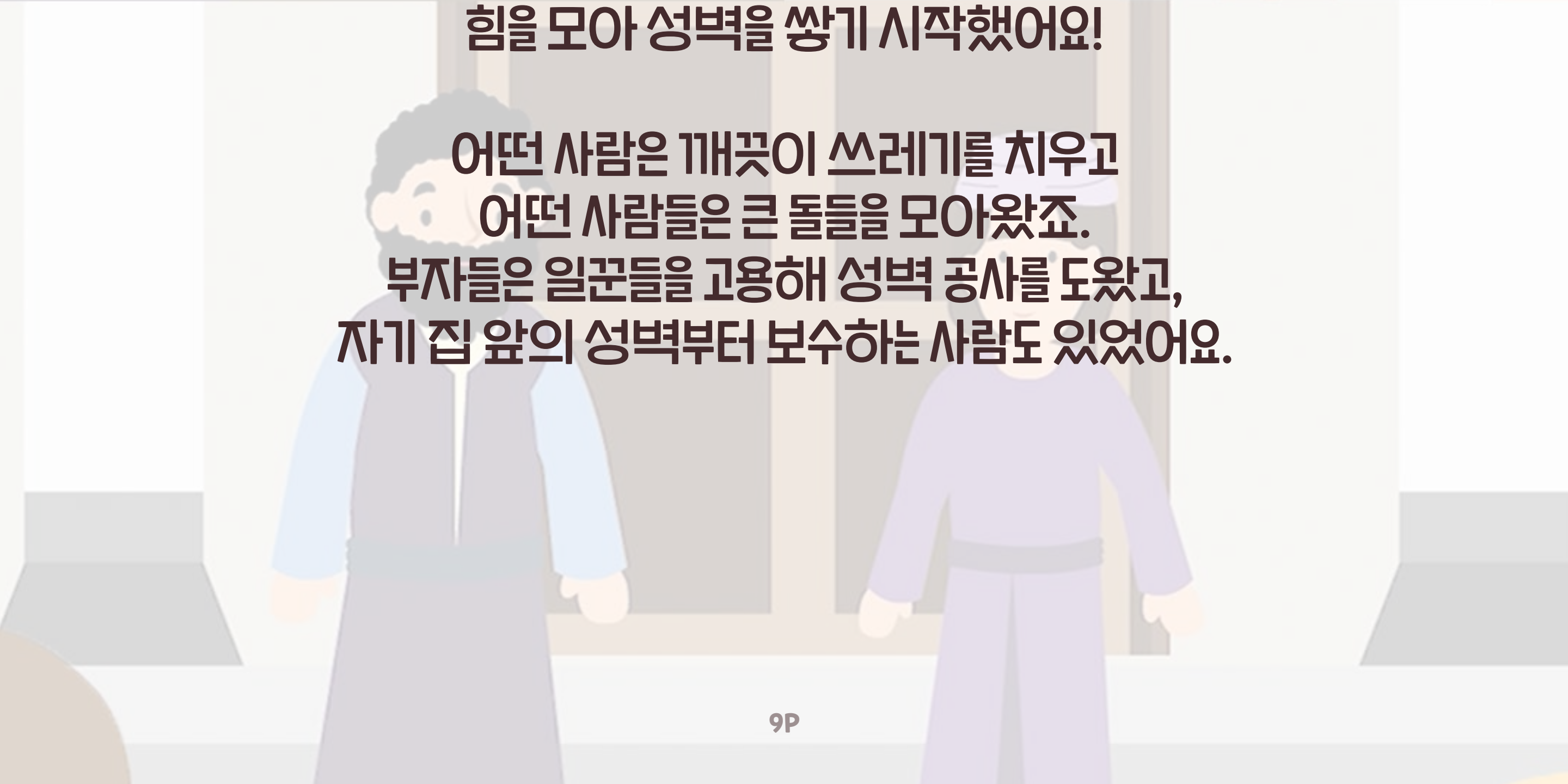
“지나가게 해 주시오.
여기 왕의 편지가 있소.”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죠.



듣던대로 예루살렘 성은 엉망이었어요!
성벽의 무너진 돌들이 그대로 무더기처럼 쌓여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지나갈 길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힘을 모아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개꺾이 쓰레기를 치우고
어떤 사람들은 큰 돌들을 모아왔죠.
부자들은 일꾼들을 고용해 성벽 공사를 도왔고,
자기 집 앞의 성벽부터 보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헤미야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공사 과정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든 공사를 방해하고 싶어서
여러 작전을 세웠죠.



**“필필필! 이걸 성벽이라고 쌓았나?
내가 보기엔 그냥 쓰레기 더미인데?”**

**“헤헤헤헤! 너희들의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위에 올라가도 폭삭 무너질게다!”**



두 사람은 먼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죠.

“느헤미야, 당신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핑계로 이곳의 왕이 되려는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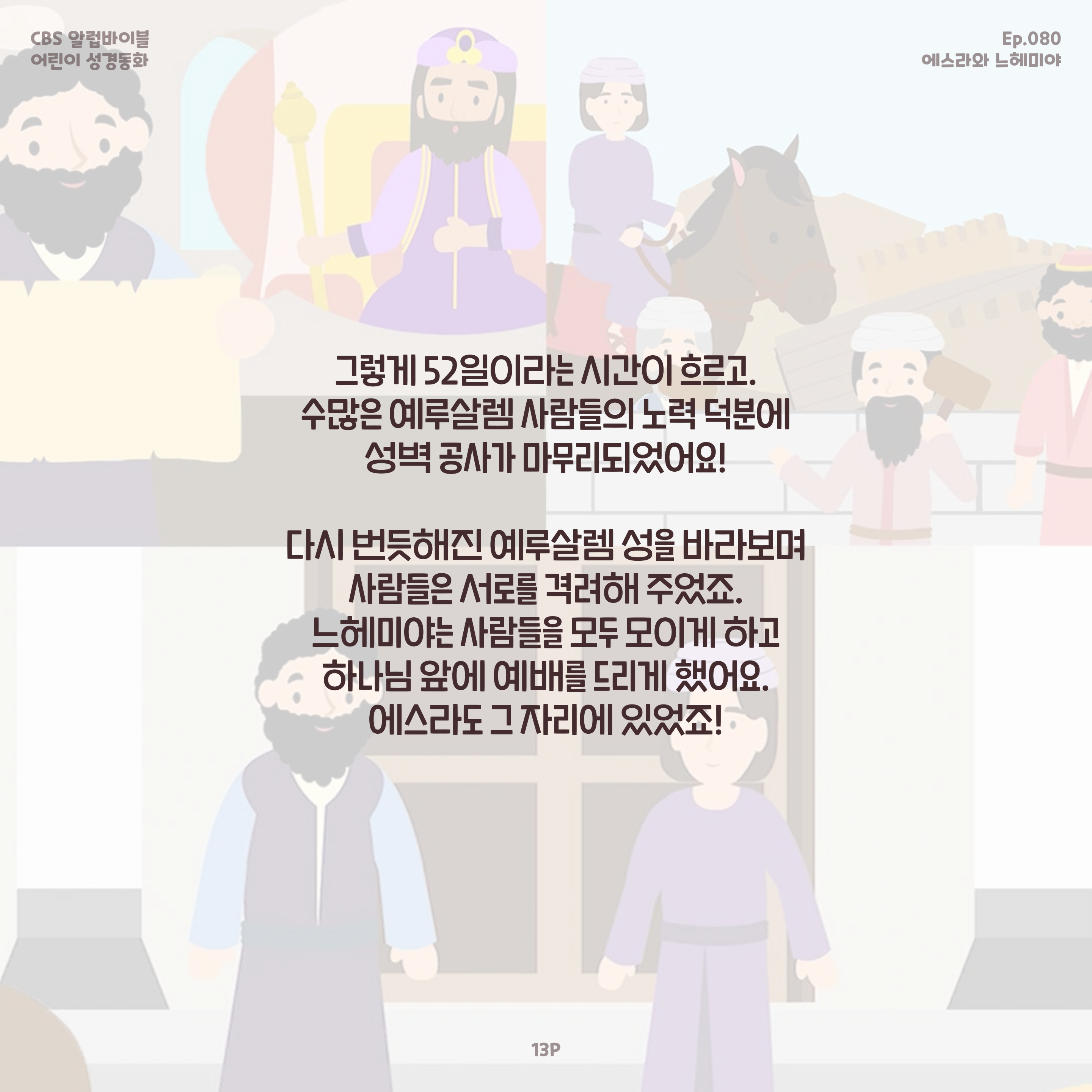
“네 녀석의 속셈은 우리가 다 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는게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당신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소.
마음대로 지어낸 말을 하는 것뿐이요.”**

약이 바짝 오른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번에는 아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사람들에게 칼과 방패로 무장하게 했죠.

밤낮으로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감시를 했고
어떤 이들은 한 손에 방패를 든 채
다른 손으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52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다시 번듯해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해 주었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에스라도 그 자리에 있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죽기 전,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라기는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그 예언은 잘 기록되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된 거예요!